

월드컵 마케팅 중 포털들이 각축을 벌이는 분야는 UCC(유저참여콘텐츠)기반 서비스. 월드컵 기간 중 네티즌을 독일 현지로 파견, 이들이 취재한 생생한 현지 분위기를 자사 사이트를 통해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등은 독일에 파견할 네티즌을 선발, 이들에게 왕복 항공권은 물론 업체에 따라 경기 관람권까지 제공할 방침이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네이버와 야후코리아는 블로거 기자단 10명, 다음은 20명을, SK커뮤니케이션은 글로벌 일촌리포터 20명을 각각 선발할 계획이다. 축구 단체와의 제휴도 월드컵에서 결실을 보게 됐다. 이미 야후는 '피파(FIFA)', 네이버는 '붉은악마', 다음은 '대한축구협회'와 각각 제휴한 상태. 포털과 방송사와의 짝짓기도 시작됐다. 네이버는 SBS, 다음은 MBC, 야후코리아는 KBS와 각각 제휴를 맺고, 인터넷과 방송 간 시너지를 발휘할 계획이다.

야후코리아 "월드컵은 우리 것"

포털 중 유일하게 FIFA 독일 월드컵 공식 파트너이기도 한 야후가 이번 마케팅전에서도 단연 앞서고 있다. 야후코리아는 토고, 프랑스, 스위스와 대항하는 한국전 티켓 320장 뿐만 아니라,



월드컵 '포털' 을 달구다

다가오는 독일 월드컵을 잡기 위한 포털들의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네이버,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엠파스 등 국내 대표 포털들은 온 국민의 이목이 쏠리는 월드컵을 활용, 진정한 '포털'로 거듭나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 더욱이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기업 이미지 제고와 회원수 증가라는 실질적인 수익원을 확보한다는 게 업체들의 전략. 특히 하위권 포털업체들은 월드컵 마케팅을 통해 상위권 진출도 모색하고 있어 주목된다.

글 | 임원근 기자(아이티타임스)



해당 경기 관람을 위한 호텔 숙박, 왕복 항공편을 포함한 160개의 (1인 2경기 관람) '월드컵 패키지'를 구성한 것.

특히 독일 월드컵 한국전 2경기 입장권, 왕복항공권, 7박 8일 숙박권은 물론이고 현장 취재 차량 및 취재일정 전반에 걸쳐 전폭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야후의 통신원은 경기장 외에도 붉은 악마 캠프방문, 교민 응원단 등을 찾아가 독일 내 대한민국의 열기를 국내 네티즌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독일 뿐 아니라 국내에서 활동할 네티즌도 선발된다. 야후코리아는 전국 각지에서 월드컵 응원 현장을 취재할 대한민국 월드컵 통신원 10명도 함께 모집, 뜨거운 응원 열기도 함께 전달할 예정.

선발된 국내파 월드컵 통신원에게는 활동비 10만원과 야후 월드컵 응원 패키지가 제공된다. 이외에도 야후코리아는 박지성 선수의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jspark.yahoo.co.kr)와 사이버 베티 게임, '월드컵토토'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다각적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네이버, 붉은악마와 제휴

붉은악마와 손잡은 네이버도 월드컵에 거는 기대가 크다. 네이버는 네티즌들이 직접 참여하는 '블로거 원

정단', '대형 태극기 공동제작' 등의 프로모션과 함께 '붉은악마'의 고유 엠블렘, 로고, 캐릭터 등의 브랜드를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붉은악마와 공동으로 유소년 축구단 지원을 위한 기금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축구관련 공익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총 10명으로 구성된 네이버 '블로거 원정단'은 독일 왕복항공권, 숙박비 및 현지 체재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 네이버는 '4800만 붉은악마 공식카페'(cafe.naver.com/redsgotogether)를 통해 전국민이 붉은악마가 되어 온라인에서의 성숙한 응원문화를 이끌어 나가고, 월드컵 경기 정보와 공식응원가 'Reds go together' 등의 응원 정보를 공유해 월드컵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을 더욱 뜨겁게 할 계획이다.

SK커뮤니케이션즈, "2002년 감동 재현한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1700만 싸이월드 회원을 바탕으로 지난 2002년 광화문의 응원열기를 온라인 상에서 재현한다는 각오다. 싸이월드에서는 지난 1월 16일부터 '가자! 2006 독일' 사이트를 열고 축구 관련 각종 뉴스와 정보를 발 빠르게 전하고 있다. 월드컵 관련 뉴스, 네티즌 패러디물, 일상 속의 태극 찾기 등을 모은 미니홈피 '태극일촌'도 운영 중이다. '태극일촌'이란 태극홈피와 일촌을 맺고 태극전사의 승리를 함께 염원하는 온라인 축구응원 서포터즈를 의미한다. 현재 '태극 일촌'은 100만명을 넘어선 상태.

재외 유학생이나 교민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일촌 리포터'도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글로벌 일촌 리포터 11명을 선발, 해외 각국의 축구열기와 박지성 등 태극전사의 활약상을 이들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최근 이들의 미니홈피는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는 중.

특히 스위스에 생겼다는 박지성 거리 정보, 이동국 선수의 부상 전후 사진 등 세계 각국에서 뉴스를 보낸 일촌 리포터들의 글이 모이는 태극일촌 미니홈피 (www.cyworld.com/tk1chon)의 방문객은 현재 1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한편 싸이월드의 '글로벌 일촌 리포터'는 독일 등 해외 각국 현지의 축구열기, 태극전사와 세계 속의 한국 소식 등 1700만 싸이월드 회원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역할을 담당할 싸이월드의 해외 특파원이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미니홈피를 운영하는 재외 유학생이나 교민들을 대상으로 우선 개최국인 독일, G조 경쟁국인 스위스, 프랑스, 그리고 유럽 축구 강호인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32개 지역에서 3월말 1차, 2차 글로벌 일촌리포터 28명을 선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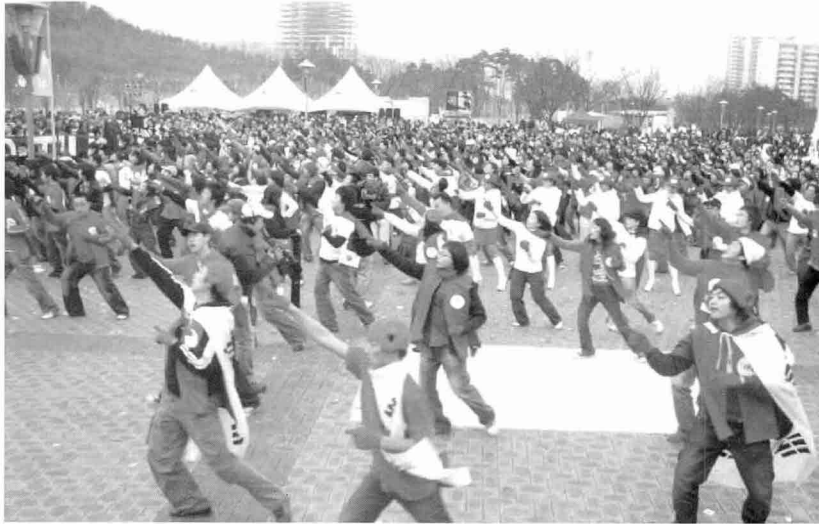
이외에도 SK커뮤니케이션즈는 네티즌이 직접 만드는 월드컵 응원가와 국가대표경기, 박지성, 이영표 축구 경기의 네이트온 알리미와 SMS서비스 등도 선별, 제공하고 있다.

다음, 응원광장 테마로 마케팅 점화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네티즌의 응원광장, 다음'이라는 테마를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우선 다음은 지난해 2월 대한축구협회(회장 정몽준)와 공식후원사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대표팀의 모든 경기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해 경기 동영상, 뉴스 등을 독점 제공하고 있는데 이어, 올해 2월에는 국내 최초로 2006년 FIFA월드컵 인터넷/모바일 중계권도 체결했다.

다음은 인터넷을 네티즌 응원 광장으로 활용, 전선



일 속보/ 2006 축구토론방/ 여성축구방/ 포토갤러리 등으로 구성해 놓았다. 특히 대표팀 생중계 코너에서는 지난 2월 15일 열렸던 멕시코전을 비롯해, 시리아전 등 국가대표팀의 경기 현황 등이 생중계돼 큰 화제를 불러 모은 바 있다. 지난 2월 다음이 인터넷 중계한 멕시코전의 경우 시청한 총 시청자 수는 110만명, 동시 접속

한 응원 문화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전국민의 관심 속에 새로운 월드컵 응원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꼭짓점댄스'를 통해 전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 밖에도 다음은 네티즌의 시각에서 바라본 월드컵 관련 소식을 다음의 뉴스 서비스인 미디어다음을 통해 한국 네티즌들에게 발 빠르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은 독일 현지에서 직접 전할 '독일 블로거 원정대'를 모집하고 독일행 경비를 비롯해 현지 체류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난 3월31일에는 문화방송(이하 MBC)과 2006 FIFA월드컵에 대한 포괄적 업무 제휴도 체결했다. 제휴를 통해 다음과 MBC는 2006 FIFA월드컵과 관련된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 공유 및 방송 프로그램 협업 등 월드컵과 관련된 전반적인 협력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월드컵 전문 섹션도 눈길을 끈다. 다음은 올 한해 FIFA독일 월드컵 등 굵직한 스포츠 이슈들이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름에 따라 일반 네티즌들의 스포츠 붐업을 위해 기존 스포츠섹션(sports.media.daum.net)을 보다 전문화 시키는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에 힘쓰고 있다. 다음은 '2006 독일 월드컵 전문 섹션'을 개설, 국가대표팀 생중계/경기일정/ 각조 전력 분석/ 2006 독

자 수는 11만명을 기록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

엠파스, 토탈사커로 깊이있는 정보 제공

열린검색 시리즈를 선보이며 2006년 한해 도약을 다짐한 엠파스도 월드컵 마케팅에 돌입했다. 월드컵을 겨냥해 이 회사는 MBC 해설위원 서형욱씨를 편집장으로 내세워 '토탈사커(totalsoccer.empas.com)'를 운영 중이다. 월드컵 초추첨을 앞두고 런칭한 '토탈사커'는 축구전문가들의 다양한 칼럼들이 올라와 있어, 깊이 있는 축구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 이 사이트는 성남 일화 김학범 감독, 영국 리버풀대학교 로건 테일러 교수 등이 연재하는 '전문가 칼럼'과 전세계 축구선수 2000여명의 스카우팅 보고서를 담은 '축구 프로파일' 등을 제공한다.

엠파스는 자체 동영상 검색 서비스를 통해 차별화된 월드컵 경기 영상을 집어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엠파스는 동영상 검색을 하면 클릭없이 10초간 미리 볼 수 있으며 모든 DB를 무료로 로그인 없이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미리보기' 기능을 강화, 플래시로 로딩 시간을 기다릴 필요없이 유저가 동영상을 쉽게 판단할 수 있게 개선했다.☒